

두 고향에 부끄럼 없는 삶을 다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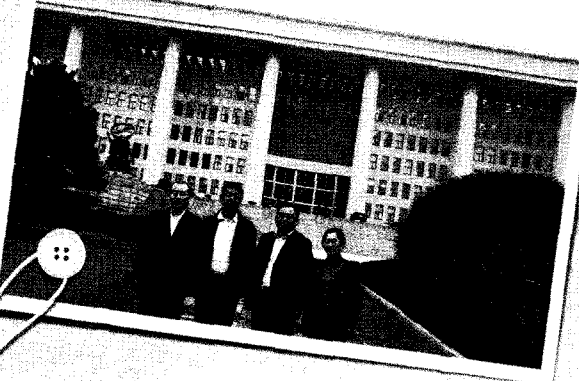
황금빛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10월, 대한결핵협회의 초청으로 아버님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방문일이 다가올 수록 우리 조상들의 승산이 모셔져 있는 한국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될 기대감에 휩싸여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 역시 비행기에 오르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아버이 고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다.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음을 느끼면서 공항 출구에 나오자 대한결핵협회 홍성표 선생이 따뜻하게 우리 일행(배상수, 임뢰, 최홍철, 석은화)을 맞이해 주었다. 홍 선생을 따라 우리는 우선 대한결핵협회 사무실에 도착했다.

대한결핵협회 사무실 건물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영등포 중심에 있었고 창 밖으로는 대한민국 국회가 보였다.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배려로 우리는 대한결핵협회의 현재 상황, 사업시스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은 결핵병 퇴치의 모든 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회의 지지 하에 예산 확보 및 기금 조성으로 결핵방치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 중국은 폐결핵환자의 치료나 관리를 모두 결핵병 예방퇴치소에서 하지만 한국은 폐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를 공공의료기관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튿날, 우리는 대한결핵협회 연구원으로 참관을 떠났다. 연구원을 향하면서 창 밖을 내다보았더니 눈을 스쳐 지나는 건물들이 웬지 낯설지 않게 안겨왔다. 차가 막혀 한

한국 결핵 연구원
The Korean Institute of Tuberculosis



짧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이 고향인 한국 땅에서 보고
느낀 것이 적지 않았다. 어딜 가봐도 깨끗한 한국,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하루 종일
분투하는 분들,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이번 방문견학에서의 소견이 나의 삶에 좋은 소스가 되어 삶에 더욱 충실하고픈 바람이다.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향에 부끄럼 없이 앞으로는 맑은 바 결핵퇴치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화단지에서 자리잡은 대한결핵협회 연구원에 도착했다.

결핵연구원 김창기 부장님의 소개로 한국의 최첨단 기술로 꾸며진 연구원 실내를 돌아보았다. 한국에서도 결핵균 약제내성 실험을 하는 데 약 50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 점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삼일째 되던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새마을 열차를 타고 마산국립결핵병원으로 떠났다. 기차 안은 조용했고 승무원이 있었지만 차표검사를 하지 않았다. 중국은 외출 시 대부분 사람들이 기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기차 안은 늘 자리가 날 새가 없기 때문에 차표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 밖으로 무르익어 가는 가을날의 황금벌판과 감나무가 한 폭의 그림 마냥 시야로 안겨온다. 어느새 탈꿈했던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감나무, 밤나무 이야기가 떠올라 혹 할머니의 고향인 경상도에 온 것이 아니냐고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경상 남도가 맞다고 했다. 스무 살에 한국을 떠나 한평생 중국에서 부지런히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랐다.

4시간 10분의 노정을 거쳐 마산국립결핵병원에 도착했다. 석낙문 소장님의 소개로 마산결핵병원의 역사와 현재 다제내성 폐결핵환자의 약물치료, 새로운 약물개발과 안내,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참관하는 도중 병리실에서 들은 DNA지문 검사로 하루 사이에 다제내성 검사를 한다는 내용이 나의 흥미를 자극했다. 시간 관계로 많은 것을 물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 다음날 정 과장님과 홍 선생의 안내로 한국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경복궁과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를 돌아보았다. 중국의 고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아보였지만 한국의 전통문화, 황궁문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 아주 영광이었다.

출국한 지 벌써 닷새가 지나 귀국날이 다가왔다. 짧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버이 고향인 한국 땅에서 보고 느낀 것이 적지 않았다. 어딜 가봐도 깨끗한 한국, 언제 어디서나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하루 종일 분투하는 분들,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를 직접 피부로 보고 느끼게 된 이번 한국행이 내 인생에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방문견학에서의 소견이 나의 삶에 좋은 '소스'가 되어, 앞으로 삶에 더욱 충실하고픈 바람이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대한결핵협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고향에 부끄럼 없이 앞으로로도 많은 바 결핵퇴치 사업에 온 힘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